

“타이거즈 왕조 재건 위해 좋은 분위기 이어가야죠”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2017시즌 '우승 주장'으로 행가래를 받았던 김주찬이 KIA 타이거즈로 돌아왔다. 그는 벤치 코치로 이범호 감독을 보좌해 '왕조재건'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13년 FA를 통해 타이거즈 일원이 된 그는 2017시즌 다이너마이트 타격의 중심이자 주장으로 활약했다. 2020년까지 KIA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그는 2021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 올해에는 롯데 타격 코치를 맡았다.

“첫 우승”을 이룬 팀에서 벤치 코치로 새출발하게 된 그는 지난 4일 시작된 마무리캠프를 통해 선수들을 알아가면서 전력을 확인하고 있다.

상대팀으로서 일찍 KIA의 우승을 예상했던 그는 ‘분위기’를 힘으로 이야기했고, 왕조재건을 위해서도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주찬 벤치코치는 “분위기가 좋아서 초반부터 KIA 우승을 생각했다. 상대로서 까다롭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들어갔다”며 “이 분위기를 어떻게 계속 끌고가느냐가 중요하다. 고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담감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쓴소리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말할 것이다”고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IA로 다시 돌아온 소감은

▲처음에 먼저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서 고맙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 KIA에 오래있었고, 마음은 항상 있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왔다.

-선수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캠프 기간이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봤다. 내가 있을 때보다는 바뀐 선수도 많고 모르는 선수도 많은데, 일단 선수들 자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잘 닦았다.

-2017시즌 우승 주장이었는데, 올해 KIA 우승을 보면서 당시 생각도 났을 것 같다

▲그렇다. 우승 순간을 보게 되면 내가 우승했던 시즌이 기억난다. 올해는 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 보였다. 초반부터 분위기 자체가 좋은 성격이 날 것 같아 닦았다. 이 분위기를 앞으로 몇 년간은 이어갈 수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KIA의 우승을 예상했는지

▲처음부터, 시즌 초반부터 닦았다. 팀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고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팀으로서 KIA를 만나면 선발도 좋고 중간도 좋고 타격도 워낙 좋았다. 그래서 게임을 하러 들어오면 상대가 까다롭게 생각하고

KIA로 돌아온 김주찬 벤치 코치

밝고 의욕적인 선수들 보며

시즌 초반 타이거즈 우승 예상

후배들이 이끄는 고참 역할 중요

‘기술’보다 소통에 신경 쓰고

이범호 감독에게도 쓴소리 할 것

들어 가게 된다. 그 부분부터가 좋았으니 시즌 초반부터 KIA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2017시즌과 올 시즌 타격의 힘이 좋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향이란 놓고 보면 17년 시즌이 더 파괴력은 있었다. 팀 구성이나 기동력 이런 것까지 합치면 올해 KIA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기동력 하면 김도영이 있는데, 아마시절 타격은 이중범 주루는 김주찬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둘다 이중범 선배님이 더 좋았을 텐데(웃음). 도영이 보고 있으면 일단 몸의 스피드 자체가 타고 난 것 같다. 탄력, 순간 스피드도 엄청 빠르다. 다치지만 않으면 좋겠다. 완성형의 선수니까 잘하라고 응원만 열심히 하겠다.

-KIA가 우승 후 분위기를 잊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담감과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장) 현식이 빠지는 했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부담감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부담감은 감독님이 느끼셔야 한다(웃음).

-이범호 감독과 각별한 사이지만 팀을 위해 쓴소리를 하는 역할이다

▲시즌 전부터 회의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것이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타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을 봐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던데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러 하고 있는데, 수석코치님도 도움 많이 주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다. 내년 시즌 기대가 많이 된다.

-KIA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팀 분위기가 지금보다 처지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하고 싶어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해주면 선수들이 많이 도

와줄 것 같다.

-현역 시절과는 선수들 모습, 분위기가 다르다

▲요즘 젊은 신인들이나 젊은 선수들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다. 유튜브 브라더지 인스타든지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화를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야 한다.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선수가 먼저 다가오게끔 해야 하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다.

-과묵했던 선수 김주찬, 코치로 이런 ‘김주찬’을 만났던가

▲나두면 알아서 했으니까 나두면 됐을 것 같다(웃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마다 성격도 성향도 다르니까 그냥 놔둬야 하는 선수도 있고 끌고 와야 하는 선수도 있다. 코치 되고 그게 제일 힘들다. 선수 때는 내 것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코치들은 그런 걸 다 챙겨야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다.

-힘들지만 코치로서 느끼는 보람도 있을 것인데

▲같이 했던 선수가 성적이 더 올라가거나. ‘코치님 덕분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때가 제일 좋다.

-가끔 직접 뛰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있는데 몸이 안 돼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선수들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다.

-새로운 선수도 많고, 선수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마무리캠프 기간이니까 젊은 선수들 못 봐왔던 선수들 스타일이 어떤지 파악하는 중이고 어느 정도는 된 것도 있다.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 기존에 뛰었던 애들은 대부분 알던 애들이다. 이제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가 있는 선수들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

-왕조재건이 목표가 됐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선수가 계속 보강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분위기 어떻게 계속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의 고참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리는 것 같다. 젊은 선수들은 그냥 고참들 따라가게 하며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고참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김주찬에게 타이거즈는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 팀이고,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줄 팀이다.

-아쉬웠던 타이거즈와의 작별, 다시 만나게 된 팬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다시 돌아왔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좋은 성적과 많은 팬들의 응원이 있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린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주찬 벤치 코치가 ‘왕조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IA 타이거즈 제공)

“내년엔 내가 우승 주인공” 행복한 ‘지옥 캠프’

야수조, 이틀 연속 강도높은 훈련에도 신인 등 의욕 넘쳐

KIA 타이거즈가 ‘지옥의 캠프’를 보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는 비가 계속되면서 훈련 스케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는 휴식을 부르는 ‘단비’가 되곤 했지만 이번 캠프는 상황이 다르다.

KIA는 지난 15·16일 이틀 연속 실내에서 훈련을 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못했고, 킨 구장 실내 연습장이 전국 사이클 대회 일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구시기와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소화했다.

15일에 투수조들이 이곳에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 야수조들은 숙소에서 웨이트 훈련을 하면서 모처럼 여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16일 야수조들의 훈련이 시작되자 실내 연습장은 ‘지옥’이 됐다.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훈련을 하기 위해 실내 연습장 구역이 바뀌었다.

일단 두 개 조각 타격 훈련을 하는 가운데 조제영 코치가 티배팅을 지휘했고, 타케시 코치와 이해장 코치가 두 조로 나눠 포수들의 훈련을 진행했다. 김민우 코치와 미즈마타 타이키 인스트럭터는 수비 훈련을 이끌었다.

동시에 빠르게 훈련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은 열새 없이 연습장을 오갔다.

전날 못했던 훈련까지 더해 압축적으로 훈련이 전개되면서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빠른 티를 5바스를 채워야 하는 미션을 끝낸 뒤 외야수 박정우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있기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안타 50개 못 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박정우.

이어 티배팅을 끝낸 김도현도 “악마를 보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설 틈을 주지 않은 조제영 코치가 ‘악마’로 보인 것이다.

김규성은 김민우 코치의 밀착 지도로 땀을 비오듯 흘렸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옷을 비틀면 땀이 물처럼 쏟아질 정도였다.

예비역이 돼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포수 신명승의 비명도 실내 연습장에 울려 퍼졌다.

타케시 코치의 지도 아래 송구를 하고 또 한 뒤 신명승은 자리에 드러눕기도 했다.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 타케시 코치는 신명승의 굳어진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량이 가장 많은 것 같다”며 야수조 최고참 오선우도 인정한 강도 높은 캠프다. 비명소리가 절로 나는 캠프지만 선수들의 의욕은 넘친다.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우승 순간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



KIA 김규성(오른쪽)이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구시기와 실내연습장에서 미즈마타 타이키(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스트럭터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민우 코치와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겼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1군 코칭스태프에게 어필 무대를 갖고 있다.

신인 선수들에게도 프로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시간이다. 한편 17일 휴식을 보내면서 재충전이 시간을 가진 KIA 선수들은 18일 다시 ‘지옥의 캠프’에서 타협 없는 훈련을 이어 나가게 된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페퍼스 7연패 ‘수렁’

IBK 기업은행에 0-3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7연패에 빠지며 분위기가 반전에 실패했다.

페퍼스는 17일 화성종합철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0-3(21-25 21-25 25-27)으로 져야 패했다.

이날 패배로 1승 7패(승점 4)를 기록한 페퍼스는 여자부 5위에 간신히 자리했다.

페퍼스는 1세트 중반까지 2점 차 이내 접전을 펼쳤지만 IBK의 빅토리아 단축과 육서영의 연속득점으로 순식간에 1세트를 허용했다.

하혜진의 오픈 성공으로 기본 좋게 시작한 2세트, 페퍼스는 3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한 이한비를 앞세워 열심히 추격했다. 그러나 이날 13득점을 올린 IBK 육서영의 킥오픈에 2세트도 승기를 내줬다.

박정아가 선취 득점으로 문을 연 마지막 3세트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다. 13-13에서 테일러의 스파이크와 장위의 연속득점으로 페퍼스는 3점 차로 달아났다. 장위가 3세트에서만 8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였지만 빅토리아의 백택과 오픈 성공으로 결국 25-27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36.84%의 공격 성공률로 팀 최다 14득점을 올린 테일러는 본전했지만 홀로 30득점(45.31%의 공격 성공률)을 올린 상대 빅토리아에 비해 ‘외인 파워’에서 아쉬운 공격력을 보였다. 또 주장 박정아는 8득점(공격 성공률 33.33%)으로 부진했다.

페퍼스는 팀 리시브 효율(26.47%)에서 약 20% 차이로 밀리면서 리시브 난조에 빠졌다. 페퍼스는 최근 테일러 영입 이후에도 내리 3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서민경 기자 minky@